



지난 10-14일 미국 LA아트쇼에서 특별전을 연 이이남 작가의 ‘만화 병풍 LED TV’ 작품 현장 사진

/작가제공

이이남, 美LA아트쇼 특별전 주목

18개국 100여 갤러리 참여...‘만화 병풍 LED TV’ 선풍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사진) 작가는 광주 출신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 작가는 2016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비디오 아트의 거장 빌 비올라와 함께 벨기에 산트 자플 교회에서 2인전을 갖는 등 현대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작가는 14세기 만들어진 ‘파에타 예수’를 통해 빛의 힘과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시 태어나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치 작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 작가가 최근 미국 서부 최대 미술제인 ‘LA아트쇼’에 참가해 또 한번의 광폭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 작가는 지난 10-14일 미국 LA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LA아트쇼’에서 특별전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번 LA아트쇼에는 프랑스, 영국 등 18개국에서 100여개 갤러리가 참여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현대 작

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아트쇼에서는 이이남 작가의 ‘만화 병풍 (Cartoon Folding Screen) LED TV’가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작품은 동양의 고전회화를 차용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룩한 인간문명의 의의를 동양적 시선과 만화적 요소를 통해 해석하고자 했다.

고전회화 위에 자연의 소리와 사계절이 바뀌는 모습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동양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고도로 발달하기까지의 현대문명과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가치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게 만들며 동양적 사유를 이끌어낸다.

문명을 파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과 포탄도 ‘만화 병풍’의 사공간에서 여유를 갖게 되며 빌딩 숲도 고전회화와 조화과 공존을 이루는 모습은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을 해방시킨다.

작가는 “‘만화’의 등장은 단순한 키



치 (kitsch) 적 요소를 넘어 시대의 풍자와 동양적 해석으로 접근하기 위한 상징적 요소로 활용된다”며 “포탄의 궤도를 순식간에

비틀고 사라지는 모습은 모나리자의 얼굴에 콧수염을 그린 마르세 뒤샹처럼 시스템의 권위에 농담을 던지며 그 여운에는 인간의 시스템과 문명의 실체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오는 18일 세계 최대 디지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아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총 연출가 마틴혼직(Martin Honzik)의 강연에서 모데레이터를 맡게 된다. 또한 올해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헤이그, 사라예보 등 해외전시를 계획 중이다.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광주문화재단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보고서’ 발간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청년문화 실태조사 후속사업으로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과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문화실태조사는 박해광 전남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1-15일 광주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천7명을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문화향유 실태, 정책수요 등을 조사했다. 또한 청년패널 표적조사, 청년문화포럼 등을 추진했다.

연구 결과가 담긴 책자로 지난해

12월 225쪽의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책자는 ▲제1장 결과요약(청년문화 실태 분석, 정책적 제언 등) ▲제2장 서론(청년, 청년문화, 청년문화 정책 등) ▲제3장 해외 청년문화 정책 현황과 사례(국가별 청년문화 정책 등) ▲제4장 청년문화실태조사 자료 분석 및 시사점(광주 청년의 문화적 실천 등) ▲제5장 청년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광주광역시 청년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다.

조사 결과 청년문화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44.5%),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생태계 조성(13.6%), 활력이 넘치는 청년도시 조성(11.7%), 광주 고유의 청년문화 육상(10.2%)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과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사업 등 2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청년문화 활성화 보고서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j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33) /정겨울 기자 jwinter@kjdaily.com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59> 육십사괘 해설 : 10. 천택이(天澤履) 上

“이호미 부질인 형”

〈履虎尾 不噬人 亨〉

역경의 열번째 괘는 천택이(天澤履)다. ‘호랑이가 누워 있는데 호랑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바로 천택이 괘다. 이(履)는 ‘밟을 이’이고, 상을 보면 외괘 건(乾)은 호랑이, 내괘 태(兌)는 소녀다. 아버지 뒤를 소녀가 뒤따라가는 모습이다. 강건하고 힘찬 건부(乾父)를 약하고 운순한 소녀 딸이 뒤 쫓아 밟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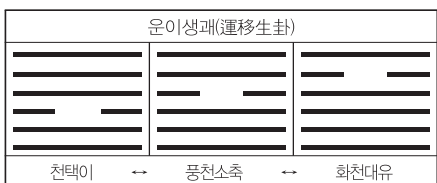
상괘 건천은 하늘이고 위에 있는데 있어 할 곳에 제대로 있다. 하괘 태택은 연못이고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상하괘의 위치가 있어야 할 곳에 바르게 있고 해야 할 일을 군(君)은 군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하고 있으며 상하존비의 분별을 바르게 하고 있어 천택이괘는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괘사의 맨 앞에 ‘이(履)’는 ‘밟는다’는 의미이고 사람이 밟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의’라는 것으로 천택이는 예절의 괘다. 예절은 어느 정도 의식이 안정돼야 지킬 수 있는 도이기 때문에 소축괘 뒤에 배치됐고 이러한 의미에서 서괘전에서도 ‘물축후유 유례, 고로 수지이이’(物畜然後有禮, 故受之以履)라 하고 있다.

이괘(履卦)의 상을 살펴보면 건과 태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바르게 위치해 존비분정지상(尊卑分定之象)이고, 강건한 건부(乾父)를 연약한 소녀가 따라가고 있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따라가려 하니 대단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따라가다가 잘못된 존장의 밟,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위태로움을 안고 있어 편안한 중에 위태로움을 대비해야 하는 안중방위지의(安中防危之意)이며, 괘의 모습이 호랑이(상괘)의 꼬리(육사)를 밟고 있는 모습(如履虎尾之譏)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고 위태로운 일에 임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건부에 해당하는 존장, 주인이나 선배 등은 물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

상하괘 간의 관계를 보면 하중부의 육삼은 유일한 음으로 치밀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 상중부를 비판하고 아랫사람들은 질책한다. 양(陽)들은 육삼의 예리한 지적이 옳은 듯해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된다. 그러나 육삼은 이러한 능력에 비해서 양의 자리에 음호가 위치해 위치가 맞지 않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 뿐이고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따라서 육삼의 비판이나 불평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삼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이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밟아 이행해 나간다’는 의미의 이괘(履卦)라 했다. 이괘의 성괘주에 해당하는 육삼은 부중부정(不中不正)의 효로 약한 음이 분수 이외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기(氣)만 강하고 힘이 없다. 따라서 육삼은 강한 자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죽음을 다해 따라가면 강한 자는 물지 않고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단사(象辭)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살펴 ‘이호미 부질인 형’이라고 해 ‘호랑이 꼬리를 밟아 쫓아 따라가니 사람을 물지 않아 형통하다’고 했다.

짐괘 이괘(履卦)를 읽으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큰 불안이 있는 때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자기의 힘 이상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을 만 못하고 곧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안으로는 기쁨(兌澤)이 있고 밖으로는 건실한 상황(乾天)이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 일을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다.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극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요

(堯)임금이 순(舜)임금에게 양위를 하자 순임금이 주저하거나 사양하지 않았던 경우이고, 순임금처럼 겸손한 사람도 악인들을 제거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했던 상황과 같다. 이괘의 상황에서는 항상 뒷사람의 충고에 따르고 남보다 한 발 뒤에서 따라가는 겸허함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나 위험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함정이 있으니 절대로 타인의 비행을 허물해서는 안 되고 육삼의 위치가 음효로서 음부의 자리로 여자 나신(裸身)의 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성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주종(主從)의 관계나 장유(長幼)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우환이 우려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 과거에 상하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소축괘와 마찬가지로 음음오양괘로 건위천의 괘에 음음이 들어와 지금의 상태가 돼 나신의 상이 됐으니 혼담 등에서 상대방 여자의 성질을 보면 음음이 오양을 거느리고 있어 음욕이 강하고 품행이 바르지 못하다. 혹 딸 여식이 연애를 하고 있다면 태백 소녀가 건장한 건부를 따라가는 상이니 이미 아내와 자식을 가진 나이는 기혼의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다. 바라는 사업이나 지망 등은 위험이 많아 통달이 다소 어렵고 지나치게 강하게 바라면 도리어 위난(危難)에 빠질 수가 있다. 이괘 전체의 각 효사를 살펴보면 성사(成事)가 어려운 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위험과 함정이 많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다. 남과 다투는 소송 등은 승산이 없다. 상대(상괘)가 너무 강해 상대의 화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고 한 때의 분함으로 이기지 못할 승부를 하기 쉬우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변괘로 이괘(履卦)를 읽을 경우 이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 윤이 생괘를 살펴보면 앞의 풍천소축괘와 같이 이괘에서 소축괘로, 다시 대유괘(大有卦)로 움직이고 있거나 그 반대로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사업을 했을 때 파트너(乾天)의 수완과 능력으로 지금 어느 정도 부를 모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실물은 음음이 오양에 갇혀 있어 상효의 때에 나오고, 기다리는 사람으로부터는 소식이 있고 돌아온다. 가출인은 남자라면 동료에게 동료와 함께 따라가 배를 타거나, 여자라면 여러 남자를 거쳐 여행처럼 따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잉태 여부는 건포괘(乾包卦) 안에 여아를 품고 있어 잉태했고, 놀랄 일이 있지만 임신(臨產)은 안태롭다. 병점에서는 우선 여자의 나신상(裸身象)으로 건(乾)의 강건한 몸에서 육삼의 음을 낳는 것으로 보아 음부에 대한 화류병 또는 매독 등으로 볼 수 있다. 병세는 급격한 경우가 많고 건(乾)의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잘 지켜 따르면 좋아지나 무리하면 좋아지지 않는다. 상괘 건(乾)과 하괘 태(兌)는 모두 괘, 기관지 등에 해당하니 호흡기 계통의 장애라고도 볼 수 있고 이 경우 습열이 심하고 양면이 막혀 비색(否塞)하며 전신(全身)이 불같이 뜨거운 증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괘가 건천으로 머리에 해당하니 상괘가 동요일 때는 머리가 깨질 듯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날씨는 구름과 안개가 끼 흐리나 좀처럼 비는 오지 않는다. /동인주역명리학당(062-654-4272)



광주

즉석 메밀막국수와 찜숯불고기

메밀가루 직접제분. 메밀면 직접 뽑고, 들기름, 장기를 직접 찌고 육수, 비빔장, 열무김치, 동치미, 직접 담금니다.

즉석메밀막국수	6천5백원
즉석메밀묵이버섯들기름막국수	7천5백원
즉석메밀막국수찜숯불고기정식	1만4천원
찜숯불고기 200g(살고기만)	8천원
존달한마리묵은지달도리 1.5kg	3만원
안방촌닭백숙 1.7kg이상(예약필수)	4만원

점심특선

조리장 왕불고기 쌈밥 / 7천5백원, 닭개장 / 6천5백원

- 저녁은 메밀가루메밀면비빔장,육수,김치를 사오지 않습니다.
- 메밀막국수 드시면 찜숯불고기 채용 숯불고기 드시면 막국수 1,000원 할인

※ 다른업소 메밀막국수와 찜숯불고기 비교 필수

제주날달

예약필수 (062) 373-0055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북계로 70 (마록동165-62)
도시철도공사(세정아울렛 건너편) 주차장 뒷길 3층건물 1층

뜨는명소

계절제철음식 정식코스요리

- 맛과 분위기는 일식집
- 가격은 횡집
- 편안한 식사환경
- 계절제철 식자재로 모든음식
- 반찬 직접 조리합니다.
- 숙이 편안합니다.

미가정식 1인 2만원 (3인부터 주문 가능)
제철정식 1인 2만5천원 (3인부터 주문 가능)
큰상차림 1인 3만원 (3인부터 주문 가능)
VIP상차림 고객 맞춤 주문 메뉴, 가격상당

정식코스 상차림에는 메밀막국수를 드립니다.

계절제철 코스요리 명가

제철미가

예약필수 (062) 376-3344

광주광역시 서구 마록북계로 70 (마록동165-62)
도시철도공사(세정아울렛 건너편) 주차장 뒷길 3층건물 2층

바로 이곳 2층입니다. 다양한 롤(4, 8, 12, 16, 20석) 대형 단체석(50, 100, 150석), 주차장 매우넓고, 대리 바로 옴

제주날달 1층 제철미가 2층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南道の 魂
자연의 흐름을 담은 제철 식재료는
어떤약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 한정식 1인 :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CMYK